

AI 기술기반 스타트업 200개사 9월 광주 온다

국내 최대 AI 스타트업 플랫폼 'SPLASH 2022' 개최 글로벌 투자사 40개·국내 투자 100개사 등 대거 참여

오는 9월 광주에서 호남권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기반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인 'SPLASH(스플래시) 2022'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SPLASH 2022'를 개최한다. 인공지능 기술기반 스타트업 200개사, 글로벌 투자사 40개사 등 국내외 240개 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행사다.

스플래시는 세계 10개국의 스타트업, 투자사, 기업, 정부가 참여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의 주요 참가업체는 AI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며, 한국전력공사가 육성하는 에너지 분야의 스타트업을 비롯한 콘텐츠, 모델리티 등 미래 유망 기술을 가진 혁신적인 스타트업 200개사가 한자리에 모인다.

주요 프로그램은 ▲총상금 2억 원이 걸린 'IR 피칭 챌린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IR 콘퍼런스 ▲스타트업 상생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나이트 네트워킹 'Beer Fest in 광주' 등이다.

또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사업확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 40개 투자사와 국내 100개 투자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행사 기간동안 스타트업과의 협력 상담을 진행한다. 센터는 이번 행사가 수도권 중심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PLASH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투자사 사전 신청은 8월 15일까지 홈페이지(www.splashkorea.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상목 사장은 "SPLASH는 '물을 튀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공을 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AI 기술기반의 혁신적 스타트업과 함께 140여개 국내외 투자자들이 광주에 함께 모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비즈니스의 한마당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정 광주시장이 21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뿌리산업전시회·그린카전시회·IoT가전로봇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 대표적인 친환경 차량인 넥소 수소차, 니로 EV, GV60 등 전기차와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차량 등 다양한 완성차도 전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캠핑카 존과 바이크,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을 전시하는 라이딩존, 드론을 직접 체험해 보는 상상 드론체험존 등 다양한 체험 시설도 마련돼 있다. 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3년 만에 빛고를 로봇페스티벌도 진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남구청 앞 봉선로

27일부터 2주간 야간작업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남구청 앞 봉선로 가시설 야간 작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주간에 실시할 경우 봉선로에서 백운광장 방향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야간에 2개 차선을 통제한 뒤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정거장 공사를 위해서는 백운광장 교통정체가 불가피함에 따라 모범신호수를 배정하고, 야간작업도 교통량이 많아지는 오전 7시 전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백남인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은 "교통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야간 공사인 만큼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순천만정원박람회

동천 뱃길 등 100억 추가 지원

전남도가 순천시와 공동 개최하는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270억 원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성공 개최를 위해 박람회 연관 신규 사업에 대비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6개로 동천 뱃길 조성, 저류지 리뉴얼 사업, 동천 미디어아트, 경관정원 연출사업, 박람회 행사 개최비, 순천 교량교 재가설사업이다.

'동천 뱃길 조성'은 순천의 젓줄이자 물 맑은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동천의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해 국가정원에서부터 원도심을 연계하는 뱃길을 조성해 수상보트를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저류지 리뉴얼 사업'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출입하도록 동천 저류지 주차장과 국가정원을 잇는 보행통로를 신규 개설하는 사업이다. '동천 미디어아트'는 천변 빛장 산책길을 따라 꿈의 다리 등 4개의 교량과 죽도봉공원 등에 발광 다이오드(LED) 경관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연출함으로써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관정원 연출사업'은 연향들 등 8개소에 총 393ha 규모로 도심과 어울리는 대규모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소병철 국회의원이 건의한 순천 교량교 재가설사업은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전남도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물과 빛을 주제로 한 주제공연과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등 공식행사와 생태·환경·정원 관련 상설·특별 체험 전시를 연출하도록 '박람회 행사 개최비'도 적정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도와 순천시는 국내외 800만명의 관광객 찾기를 위한 박람회 연출에 빈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박람회 개최로 고용창출 2만명 등 1조5000억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대통령상

8년 연속 일자리 평가 우수 지자체

전남도가 21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고용부는 2010년부터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대체의 계획·집행·성과와 고용지표의 증감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종합대상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해 8년 연속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군에선 광양시·무안군이 최우수상을, 여수시·강진군·영광군·장성군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블루 이코노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900여 개의 일자리와 200여 명의 청년이 전입·정착할 수 있는 일

자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는 좋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으로 민선7기 1000개 기업유치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강소기업 지원 등 일관된 시책으로 일자리지향형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906개 기업과 25조원 규모 일자리형 투자유치를 이끌어 2만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를 포함해 도청 각 실·국에서 추진한 각종 일자리 사업으로 총 12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해마다 '전라남도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진행, 일자리 중심의 도정 운영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확장하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일자리창출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특히 민선7기 동안 124개 사업에 246억 원을 투입해 전남도 자체사업 '시·군 동행 일자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 4248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도한바퀴, 제주도민 싣고 전남 관광지 누빈다

제주페리 연계상품 출시

진도·완도항서 매주 토요일 출발

전남도가 대표 관광상품인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와 '제주페리'를 연계한 상품을 출시, 23일 첫 운행에 들어간다.

최근 제주도민의 육지 관광 수요가 늘면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전남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남도한바퀴 제주페리 상품은 매주 토요일 제주에서 페리를 타고 완도항이나 진도항에 내려 버스로 1박 2일 동안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상품이다. 진도항 출발은 19만9000원, 완도항 출발은 20만9000원이며 여기에는 왕복 승선비, 숙박비, 관광지 입장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별여행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해남 대항사,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1960년대 기자역

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섬진강기차마을, 전통 남중화의 본산 진도 운림산방, 다도해의 금빛 나초와 야경을 감상하는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최근 떠오르는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전남도는 남도한바퀴 제주페리 연계상품 출시에 맞춰 제주공항, 페리, 여객선터미널에서 전단지, 광고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추후 홍보영상, 지역 유튜브 및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상품 알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제주도민이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편리하게 여행하도록 상품을 준비했다"며 "안심관광 힐링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전남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상품 안내는 남도한바퀴 누리집, 남도한바퀴 콜센터, 남도한바퀴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임대 및 특판 안내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임대 안내			
층	호실	임대면적	호별 위치도
1	101호	27평	1층
	102호	40평	
	103호	51평	
2	201호	27평	2층
	202호	28평	
	203호	43평	
	204호	82평	
3	301호	금남몰라이트치과	3층
	302호	72평	
	303호	83평	
4	401호	103평	4층
	402호	72평	
	403호	83평	
5	501호	MG 문화센터 (갤러리 대관 환영)	5층
	502호	MG 골프클럽 (회원 대 모집)	

무궁무진 MGMG 정기예탁금

1년 **3.3%**

고이율 입출금 통장

개인을 위한 **2.2%**

자신만민자유예탁금 최고

사업자를 위한 **2.5%**

등록기업자유예탁금 최고

MG골프클럽 특가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일 이상 (10%)	40일 이상 (15%)	50일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조건 문의 (영업지원팀)
 * 특가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할인 금액 2만원)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